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23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어린이들

♠ 경배의 찬송 35(통50). 큰 영화로신 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이로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찬양과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조건을 찾는 데 익숙합니다. 가을낙엽처럼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신선한 생명의 기운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신종플루가 빠르게 전염되면서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속히 강건해 지기를 원합니다.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개인적인 위생과 더불어 사회적인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모든 생명과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5:3,4 인도자

♠ 교 독 문 67. 잠언3장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윤운 선생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151(통138).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다함께

성경봉독 I. 요12:24,25 이수정 학생

II. 계2:1-7 송동준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 손성현전도사

II. 첫사랑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송 298(통35). 속죄하신 구세주를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을 만나며 품었던 첫 마음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다던 다짐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뜨거운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의무감과 형식주의에 빠져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첫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던 첫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지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별 월례회	성경공부
찬양인도 : 장성호 형제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안 현 학생	하진채 학생
	김기석 목사	윤석철 장로	장혜숙 권사

11월	영접위원	한완식 최철수 박석희 박애순 조항미 박성실
	헌금위원	방문성 백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인격이란 눈물과 비극을 처리하는 아량이다

저는 가끔 제가 어떠한 인격을 지닌 사람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의 본질은 무엇이며,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스스로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늘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생각이 가끔 저를 우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남한테 인격을 무시당했다고 생각될 때 그 무시당한 저의 인격이 저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남한테 무시당했다고 생각되는 그 인격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인격이 형편없다거나 또는 훌륭하다고 했을 때, 그 인격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먼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성이 바로 인격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신은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 품격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동물 하나하나에도 식물 하나하나에도 신이 부여한 품격이 존재해 있을 것입니다.

.....

신이 부여한 인간으로서의 그 존중성을 인간이 지키지 않을 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심하게 다툰 경우를 보면 대부분 제 인격이 원초적으로 무시당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이 인격의 훌륭함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어떠한 경우에 훌륭한 인격을 지녔다고 높이 평가하는 것일까요.

일제 강점기 때 광양중학교를 설립하신 제 고모부님은 술도가를 하실 때 누구든지 먹고 갈 수 있도록 술독에 바가지를 늘 띄워놓았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분의 일생을 정리하는 글을 쓰기 위해 그곳에 갔더니 동네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분은 날아가는 새도 불러다가 먹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화순 탄광에서 금이 나온다는 말만 믿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업자금으로 맡겼다가 그대로 다 떼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거

짓말을 한 그 사람이 알려지기가 되어 찾아와 방 한 칸을 얻어달라고 하자 고모 부님은 그만 허허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동네 청년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네가 그 어른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격이란 그분의 이런 아량의 정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책에서 읽은 ‘인격이란 눈물과 비극을 처리하는 아량’이라고 한 말에 공감했습니다. 불행과 절망, 눈물과 비극을 이겨 내는 마음의 힘, 또는 마음의 크기가 바로 인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크기가 똑같은 인격이라는 그릇을 하나씩 가슴에 품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신은 그 그릇에 기쁨보다는 슬픔을, 행복보다는 불행, 웃음보다는 비극을 담으라고 그 그릇을 주었습니다. 인격이란 결국 참고 견디기 어려운 눈물을 평생 동안 담으라고 준 그 그릇을 말합니다. 그릇이 크면 클수록 눈물이 담기는 양도 많고, 적으면 적을수록 그 양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바로 인격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을 얼마나 잘 견뎌내었는지에 따라 사람의 척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극과 눈물 없이 지낸 인생은 편안한 인생은 될 수 있어도 훌륭한 인생은 되지 못합니다. 눈물과 비극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반쪽은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릇에 넘치는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이 작아 물이 넘치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젊은 날에 그릇을 크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인격이라는 그릇을 줄 때는 똑같은 그릇이었지만, 그 그릇의 크기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까지나 제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제 눈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신이 주신 그대로의 크기입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눈물은 많은데 그것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그릇을 지니고 있어서 항상 흘러넘칩니다. 그 흘러넘친 눈물이 항상 남을 괴롭힙니다. 오직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제 그릇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릇에 넘치게 물을 담으려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담는다 하더라도 오직 눈물 외에는 담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축복받은 사람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맘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 주셨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박시내	윤정덕	구성실	한완식	임정자	한상의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김준우	우순덕	권미숙	김순복	전영웅	김신옥	김윤수	박상호	김중수
이순정	김희진	박홍재	문복순	최현선	박지인	박창운	허정윤	윤미경
윤수진	장성호	정한구	왕영순	임창선	강미선	조병무	송양진	이인섭
이성운	김성한	조영순	김재흥	최희영	서수진	전세종	김정민	신태진
정부자	강순배	권채영	손성윤	오진훈	노순옥			

월정헌금:

권 순	윤정화	김남중	오복순	김명순	이교영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문금석	윤주원	최윤선	이은자	정두리	조순덕	김시영	한성건
김영순	김용태	박정숙	안길상	이형숙				

감사헌금:

김시영 한훈식 전 용 박병구 김정애 방문성 박혜경 권채영 무명6

생일감사헌금:

김인걸

녹색꿈 헌금:

이정은 장영숙 박준희 이기분 무명1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연 합 속 회	송임회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윤수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이은옥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김영순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조병주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박홍재
시온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김재광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이정은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이현숙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백성례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선교회** :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선교회별 월례회로 모입니다. 한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 사무실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2. **교회탐방** : 이번 주 수요집회에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들이 교회탐방을 옵니다.
3. **결혼** : 박권동 씨와 하소연 씨의 결혼식이 14일(토) 오후 2시에 뉴욕웨딩홀(송내)에서 열립니다. 축하합니다.
4. **보고서** : 당회 준비를 위하여 각 부서의 2009년 활동 보고서를 29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5. **판매** : 김장용 절임 배추와 젓갈을 신청 받습니다. 배추는 10kg에 20,000원 추젓은 2kg에 7,500원 육젓은 1kg에 15,000원입니다.
6. **신앙실천** :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심어린 격려의 말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식당 봉사 : 에베소 속 (다음 주 : 에베소 속)

* 설거지 봉사 : 윤종권 박권동 (다음 주 : 곽상준 최경미)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